



●● 심터의 장

지혜 스피치 _ 사람의 독성
고사성어 _ 염파부형[廉頗負荊]
한권의책 _ 위대한 만남
영화 이야기 _ 데스티네이션 3
연극 공연 _ 우당탕탕, 할머니의 방
바둑묘수풀이 _ 〈兩先手〉라는 끝내기
등산 안내 _ 덕유산
골프 안내 _ 드라이버②



지혜 스피치

사람의 독성

21세기는 자기표현의 시대다. 말에 의한 자기표현이 부족하게 되면 그야말로 예기치 못한 어처구니없는 일들로 난감한 일을 겪게 된다. 삶의 목표와 비전, 내면의 혁신을 위해 스피치는 매우 중요하다.

하버드 대학의 게이트츠 교수가 실험한 바에 의하면 냉각된 유리 관에 화났을 때의 숨을 담으면 담황색 찌꺼기가 모인다고 한다. 이것을 '기니피그'라는 실험용 쥐에게 주입한 결과 쥐가 흥분했으며, 격렬하게 화를 낼 때의 숨을 모아 담황색 찌꺼기를 주입했더니 기니피그는 몇 분내에 죽어버렸다고 한다.

1시간 동안의 격렬한 증오는 80여 명의 사람을 죽일 수 있는 독을 생산한다고 한다. 사람의 독은 독사보다 1,000배나 더 많다. 더 중요한 사실은 독사는 독을 몸 밖으로 배출할 수 있지만, 인간의 독은 체내에 쌓인다는 점이다.

독사가 하늘을 나는 참새를 보고 “저 놈을 반드시 먹고 말 테다”라고 독기를 품으면 그 독기의 파장이 결국 참새를 눌러 참새가 스스로 땅으로 내려오고 급기야 독사의 입 속으로 빨려 들어가게 된다. 그것은 독사가 마술을 부린 것도 아니고 최면을 건 것은 더더욱 아니다. 한 번 먹은 독한 기운이 엄청난 힘을 발휘한 때문이다.

흔히 점쟁이가 하는 말은 사람에게 큰 힘이 되기보다 독을 쏟아 붓는 경우가 더 많다.

사람들은 궁금한 것이 있거나 걱정거리가 많을 때 불안한 마음을 가라앉히고 점쟁이를 찾아가는다. 점쟁이들은 안 좋은 부분을 더욱 부각시키며 겁주는 것을 전공한 사람들처럼 그 부분만 더 강조하여 말해준다. 그러면 말의 악순환이 일어나 결국 좋지 않은 일들

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일어나게 된다.

말이 입 밖으로 나와 뇌에 주입되면 아닌 것도 그렇게 되고 만다. 말이라는 것은 그 자체로 기를 뿜어내기 때문이다. 그것을 잘 알고 있던 옛날의 점쟁이들은 천기누설을 두려워하며 알아도 모르는 척 해주는 지혜를 발휘하기도 했다.

“내가 내 입 가지고 왜 말을 못하느냐”는 생각은 말과 기에 대한 통합된 이치를 모르고 하는 소리다. 특히 단정적인 말로 한 사람의 인생을 결정짓는 것은 자연의 이치를 거스르는 일이었다.

서구의 어느 나라에서 사형수 세 명을 상대로 말에 대한 실험을 했다.

“이제 여러분이 실험실에 들어가면 몸에 있는 피를 모두 뽑아 다른 사람에게 채워줄 것이오.”

그처럼 무시무시한 말을 들은 사형수들은 며칠 동안 두려움에 떨다가 마침내 눈을 가리고 하나하나 실험실로 들어가게 되었다. 그들은 차가운 실험대 위에 누웠고, 누군가가 자신들의 팔목에 칼을 갖다대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하지만 사실은 칼이 아니라 그 위에 체온과 비슷한 물방울을 떨어뜨렸을 뿐이었다. 그렇게 계속해서 물방울을 떨어뜨리자 얼마 지나지 않아 눈을 가린 사형수들은 차츰차츰 숨이 끊어져갔다. 실제로는 피 한 방울 흘리지 않았는데도 말이다.



사람의 상상력이란 이처럼 무서운 것이다. 마찬가지로 내가 나에게 주입하는 온갖 부정적인 말들은 엄청난 위력을 지니고 있다. 마음속에 품은 독기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강한 파장을 일으킨다. “마음 한 번 다잡으면 삶이 달라진다”는 말은 결코 허무맹랑한 논리가 아니다.

힌두교 경전에 보면 “인간은 생각대로 된다”는 말이 나온다. 이것은 곧 우리가 어떠한 마음 자세로 살아가느냐에 따라 우리의 모습이 달라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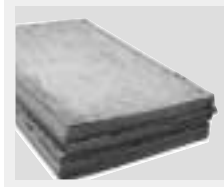
미국의 유명한 심리학자인 윌리엄 제임스는 이런 말을 남겼다.
“우리 세대의 가장 위대한 발견은 자신의 마음자세를 바꾸는 것

으로 자신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이다.”

즉, 내가 생각하고 뱉어내는 말 한 마디로 나를 발전시킬 수도 있고 절망의 구렁텅이로 내몰 수도 있다는 것이다.

나 자신에게 힘을 주고 상대방을 어루만져 줄 수 있는 따뜻한 말은 인간이 지닌 최대의 능력이다. 이제 날이 갈수록 말의 중요성은 더해 질 것이고 더불어 말 잘하는 법을 터득하여 모든 삶에 적용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떠오를 것이다.

[이현정의 「성공하는 스피치 돈 버는 스피치」 중에서]



고사성어

염파부형[廉頗負荊]

일찍부터 이루어진 중국과의 문화적 교류는 우리 정신 문화에 커다란 영향을 미쳐왔으며, 또한 중국의 사고 방식은 우리의 일상생활에까지 깊이 뿌리박고 있다. 오늘날 우리 생활과 깊은 관계를 맺으며 지식인들이 흔히 사용하는 고사나 속어, 명언 중에서 가장 함축성 있고 풍자적인 주옥같은 명구들을 소개한다.

염파가 조나라의 장군이었을 때 인상여는 재상인 상경 벼슬에 임명되어 염파보다 높은 자리에 있었다. 염파는 이렇게 투덜댔다.

“나는 장군으로 성을 공격하고 야전에서 큰공을 세웠다. 그런데 인상여는 그저 입만 움직이면서도 지위는 나보다 높다. 거기다 태생이 비천한 자다. 나는 그의 밑에 있는 것이 부끄럽다.”

그러면서 이렇게 선언했다.

“한 번 만나면 반드시 모욕해 주겠다.”

인상여는 그 말을 듣고 그를 만나지 않으려고 했다. 조정

에서 조회할 때마다 항상 병을 핑계로 염파와 자리를 다투려고 하지 않았다. 외출해서까지 염파를 멀리서 보게 되면 수레를 돌려 도망을 쳤다. 하인들이 보다못해 이렇게 말했다.

“염파는 심한 말을 공공연하게 해내고 있는데, 외람되지만 나리는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평범한 사람도 창피해 할 일입니다. 하물며 장군이나 대신의 지위에 있어서는 어떻겠습니까?”

그러자 인상여는 이렇게 대답했다.

“자네가 판단해 보건대 염파는 진나라 왕과 비교해서 어떤가?”



그러자 하인은 이렇게 말했다.

“미치지 못합니다.”

인상여가 말했다.

“나는 진나라 왕이 아무리 위세가 있다 해도 그 조정에서 왕을 질책하고 신하들의 잘못을 꾸짖었다. 내가 아무리 멍청하다 해도 유독 염 장군만을 두려워하겠는가. 생각해 보면 강국인 진나라가 감히 조나라에 공격해 오지 않는 것은 단지 우리 두 사람이 있기 때문이다. 이제 두 마리의 호랑이가 싸우면 쌍방 모두 살아남지 못할 것이다. 내가 그와 다투지 않는 것은 나라의 위급함을 첫째로 여기고, 개인의 원한을 그 다음으로 여기기 때문이다.”

염파는 이 말을 전해 듣고는 웃옷을 벗고 가시나무 채찍을 등에 지고 인상여의 문 앞에까지 와서 사죄하며 말했다.

“비천한 저는 장군의 관대함이 이 정도인지는 몰랐습니다.”

결국 서로 가까이 상대방을 위해서는 죽음도 같이 할 정도의 친한 사이가 되었다.

염파와 인상여는 이른바 목이 달아나도 배신하지 않는다는 문경지교(刎頸之交)의 우정으로 잘 알려진 인물이다.

염파의 군인다운 솔직함과 인상여의 정치가다운 냉철함이 조화됐을 때 조나라는 일시적이지만 진나라의 침략을 받지 않고 살 수 있었다.

[이한의 「지혜를 두드리는 인생의 아홉 가지 문 뭉치」 中에서]



한권의 책

위대한 만남

나의 마음을 뒤흔드는 위대한 영혼을 만나자.

역사를 통틀어 인류 의식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스무 명의 인물을 재평가한다.

‘예수 이후 가장 위험한 인물’로 불린 오소라즈니쉬의 날카로운 해석이 돋보인다. 인생과 신, 그리고 깨달음에 대한 명상이 담겨 있는 책으로, 공격적인 삶의 태도에 일침을 가하며 현대인에게 ‘진정 위대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라는 화두를 던지고 있다.

깨달음은 하나로 통한다.

그들은 바로 붓다, 예수, 장자, 노자, 크리슈나, 헤

라클레이토스 같은 인물들이다. 이 책은 그들의 삶을 통해 진정한 삶이 무엇인가를 이 시대에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한다. 다른 시간과 다른 공간 속에서 살다 간 이 위대한 사람들에게 흐르는 공통된 하나의 생각은 바로 인간답게 사는 것이 가장 위대한 일이라는 것이었다.

예수를 신으로 만든 것은 예수 자신이 아니라 후대의 기독교인들이었다. 예수는 가장 인간다운 사람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또한 가장 신다운 사람이었던 것이다.

노자가 말하는 ‘도를 도라 하면 참된 도가 아니다’라는 것도 그 속을 자세히 관찰해보면 같은 맥락이다. 교리와 법률보다 더 높이 있는



것은 물 흐르듯 자연스럽게 사는 것, 곧 인간답게 사는 것이다.

그들은 각자 다른 시대, 각자 다른 종교를 통해 하나같이 하나의 진실을 깨닫는다. 인간 안에 신이 있다는 것, 인간이 바로 부처요 하나님이라는 것이다.

마음을 다스리는 법, 인간답게 사는 법

저자는 이 스무 명의 인물을 통해 현대인에게 마음을 다스리는 법을 알려준다. 치열하게 고민하고 깨달음을 얻은 인물들을 통해 던지시 인생의 해답을 제시하고 있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것에 익숙하지

않다. 내면이라고 해봤자 순간순간의 감정에 휘둘리는 것이 고작이다. 마음의 평화를 원하지만 만족할 수도 없고 행복을 느끼지도 못한다.

이 책은 자신의 존재에 공허감을 느끼는 현대인에게 전하는 희망의 메시지다. 마음의 병을 앓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따뜻하게 감싸안는 위대한 스승 같은 책이다.

[저자 / 오쇼, 출판사 / 비전코리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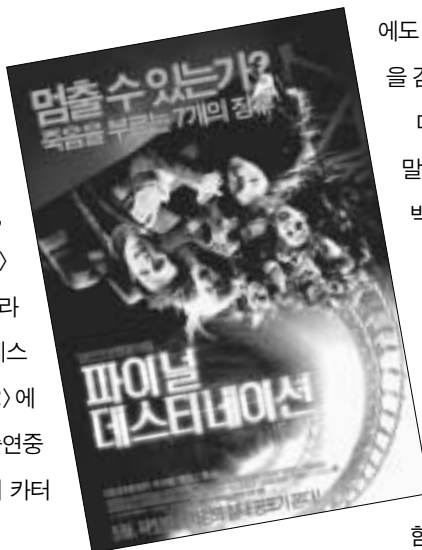


영화 이야기

데스티네이션 3

2000년 3월과 2003년 1월에 각각 개봉하여 북미에서만 5,330만불(개봉주말 수입 1,002만불)과 4,646만불(개봉주말 수입 1,602만불)을 벌어들이는 성공적인 흥행성과를 올린 바 있는 시리즈 1편과 2편의 뒤를 이어 3년만에 다시 등장한 초자연 호러 스릴러물 3탄.

출연진은 새로운 얼굴들로 구성되었는데, 스티븐 스필버그 제작의 TV 시리즈 <테이큰>의 라이언 메리맨과 실사판 <인크레더블>이라고 불리웠던 <스카이 하이>의 메리 엘리자베스 윈스테드를 중심으로(이 둘은 미국판 <링 2>에서 공연한 바 있다), <나비 효과 2>에 같이 출연중인 지나 홀든과 더스틴 밀리건, 그리고 <코치 카터>의 텍사스 배틀 등이 공연하고 있다.



시리즈 1편의 연출과 공동각본을 담당했던 홍콩출신의 감독 제임스 왕이 다시 한번 메가폰을 잡았는데, 그는 이번에도 1편의 각본파트너 글렌 모겐과 함께 각본작업을 겸했다.

미국 개봉에선 첫주 2,880개 극장에서 개봉 주말 3일동안 1,917만불의 수입을 기록하여 주말 박스오피스 2위에 올랐다.

고교 졸업반인 여고생 웬디 크리스텐슨은 놀이공원에서 열리는 졸업축하 파티에 갔다가, 롤러 코스터를 타기 직전 끔찍한 롤러 코스터 사고의 환상을 경험한다.

공포에 질린 웬디는 친구들에게 내리라고 하지만, 그녀 옆에 앉아있던 케빈을 포함한 일부 친구들만이 내리고, 롤러 코스터를 멈

추는데는 실패한다.

출발한 롤러 코스터는 웬디가 환상 속에서 목격한 것과 똑같은 대형참사를 일으킨다. 이후, 웬디와 그녀 덕분에 예정된 죽음에서 살아남은 친구들은 죽음이 자신들을 따라다니기 시작했음을 깨닫고, 필사적으로 자신들의 운명을 바꾸려 하는데…….

미국 개봉시 대부분의 평론가들은 시리즈 전편들에 대해서와 마찬가지로 시큰둥한 반응을 나타내었다.

디트로이트 뉴스의 톰 룬은 “이 영화가 흥행에 성공한다면 시리즈는 앞으로 계속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이 영화가 가장 신경 쓰이게 만드는 점”이라고 평했고, 엔터테인먼트 위클리의 오웬 글라이버맨은 “점점 가열되는 ‘이 보다 더 잔인할 수 있어?’ 대화”라고 꼬집었으며, 버라이어티의 저스틴 쉐은 “산만한 플롯 덕분에 영화는 스릴러라고 하기보다는 강력범죄 리스트 쪽에 가깝게 느껴진다”고 빈정거렸다.

또, 시카고 트리뷴의 마이클 윌밍턴은 “이 고어 페스티벌은 관객들의 식욕을 떨어뜨리거나, 아니면 일찍 극장 문을 박차고 나가게 만들 것”이라고 예측했고, 시애틀-포스트 인텔리전서의 셀 액스메이커는 “게으른 아이디어와 평범한 구성”을 질타했으며, 뉴욕 타임즈의 네이션 리는 “이 영화는 1편의 신선함도, 2편의 허세도 없으며, 그 동안 시리즈에 나름의 재미를 선사해 온 비틀린 유머감각 역시 부재하다”고 혹평을 가했다.



연극공연

연극계 거장들이 만들어낸 고품격 가족연극 **우당탕탕, 할머니의 방**

〈우당탕탕, 할머니의 방〉의 원작인 그림동화 ‘우당탕탕, 할머니 귀가 커졌어요’를 읽은 어린이라면 연극과 동화를 비교하면서 공연을 관람하는 것도 공연을 즐기는 또 하나의 방법이 될 것이다.

책 속의 집을 고스란히 무대 위에 옮겨놓은 듯한 착각을 일으킬 정도로 무대는 완벽하게 재창조된다.

무대는 원작 동화를 바탕으로 2층으로 제작되며, 기존의 1차원적인 무대의 활용이 아니라 무대 밑에 설치된 회전판을 이용하여 무대가 회전하면서 무

대전환의 효과는 물론, 극의 재미까지 배가시킨다.



빛을 이용한 다양한 무대연출

조명은 음악과 함께 극에 생명력을 불어넣는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이번 〈우당탕탕, 할머니의 방〉에서 조명은 쉼없이 홀로 시는 할머니와 정교한 인형들과, 다양한 오브제들의 감정을 잘 표현해 주고 있어 극에서 빠질 수 없는 필수요소이다.

타악그룹 <공명>의 익살스러운 리듬

한국적 음악색채에 현대감각을 덧입혀 늘 새로운 음악을 창조하는 국악퓨전 타악그룹 <공명>, 이들은 이번 공연에서 자신들이 직접 제작한 대나무 악기 '공명'을 이용하여 경쾌한 리듬을 중심으로 한 곡들을 선보인다.

반복적으로 들어야 인지가 되는 선율 중심이 아니라, 듣는 즉시 반응하고 리듬에 빠질 수 있는 타악기를 중심으로 작곡되었으며 이는 주 관객들인 어린이들의 극에 대한 즉각적인 반응을 이끌어내는데 효과적으로 작용할 것이다.

■ 공연줄거리

도심 외곽의 조용하고 자그마한 이층집에 혼자 사는 할머니, 할머니는 스스로 무척 독립적이라고 자부하며 외로움이란 찾아볼 수 없이 하루하루를 즐겁게 살려고 애쓴다.

할머니의 유일한 친구는 할머니 방의 예기치 않는 곳에 자리 잡고 있는 말하는 사물들. 할머니는 하루 종일 그들과 티격태격.....

할머니와 오랫동안 동거해 온 그 사물들은 할머니가 결코 독립적이지 못하며 외로운 사람임을 잘 알고 있다.

어느 날, 조용하던 할머니 집 위층에 새로운 가족이 이사를 온다.

도심의 아주 작은 아파트에서 살던 용환이, 용희 가족은 예전보

다 넓은 집에 살게 되어 행복을 감추지 못하지만 그것도 잠시, 아래층에서 올라온 할머니의 호통에 기겁을 하고 만다.

용환이, 용희 남매가 만드는 소음 때문에 할머니와 용환이, 용희 가족은 마치 전쟁을 하듯 실갱이를 벌이고, 마침내 용환이, 용희 남매는 그들만의 묘책을 낸다.

어느 날부터 갑자기 조용해진 용환이, 용희네 집.

할머니는 고요함의 이유가 너무 궁금한 나머지 하루 종일 천장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한다.

할머니의 귀는 커져 가는 의문만큼이나 점점 커져가고, 결국 병환으로 앓아 누운 할머니에게 의사 선생님이 왕진을 오는데, 과연 할머니는 용환이 용희 남매와.....



∴ 공연안내

△공연기간 : 2006년 5월 10일~2006년 5월 21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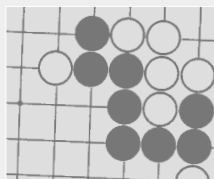
△공연시간 : 월~금 1일 1회 공연(오후 5시)

/ 토·일 1일 2회 공연(오후 3시, 5시)

△공연장소 : 대학로 동덕여대 공연예술센터 대극장

△문의 : 02) 725-4033, 02) 735-5184

△홈페이지 : www.kccac.org



바둑묘수 풀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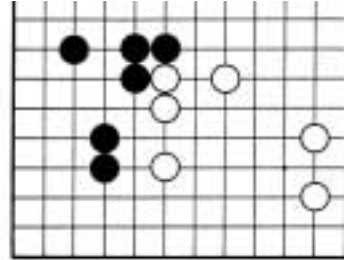
<양선수(兩先手)라는 끝내기

바둑은 전략이다. 바둑은 두뇌싸움이다. 두뇌를 쓰지 않고, 전략을 세우지 않고 이기겠다는 뜻심 하나로 전장에 뛰어드는 병사는 하루살이 꿀을 면치 못한다.

[문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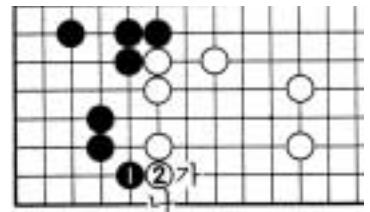
흑선. 바둑이 끝내기 단계에 들어갔다고 본 부분도(部分圖)이다. 서로 먼저 두면 이익인 자리가 있다. 선수를 잡은 흑은 어떻게 끝내기를 하는 것이 좋을까? '만일 백이 둔다' 면 하는 생각을 해본다. 단, 후수(後手)로 처리되면 안 된다.

※ 바둑의 마무리를 하는 끝내기에는 세 종류가 있다. ①양선수(兩先手 : 어느 쪽이 두든 선수가 되는 것으로 먼저 두는 쪽이 이익), ②편선수(片先手 : 한쪽은 선수지만 상대방은 후수가 되는 곳으로 선수가 되는 쪽의 권리로 본다. 단, 역끝내기라고 해서 후수가 되는 쪽이 두는 경우도 있다), ③양후수(兩後手 : 서로 후수가 되는 것으로 미루는 것이 보통) 등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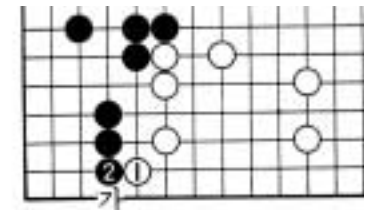
[정답도]

흑1로 마늘모하는 것이 정답이다. 白2를 손빠면 가에 뛰어드는 수를 노리고 있으므로, 白은 2로 받을 수밖에 없다. 그 뒤 黑나의 젓힘은 편선수(片先手)로 언제든지 둘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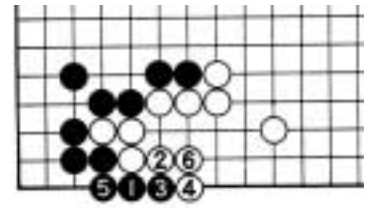
[실패도]

만일, 白1로 두게 하면 사정은 역전(逆轉)된다. 黑2 다음 白가는 白의 권리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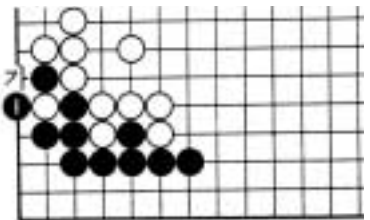
[참고 1도]

흑1의 젓힘은 편선수의 전형이다. 白2로 늦추어 받을 수밖에 없다. 이것은 상당히 큰 곳이지만, 白이 5로 두는 것은 후수이므로 서두를 필요가 없다.



[참고 2도]

흑1로 따내는 것이나 白가로 따내는 것은 서로 후수이며, 뒤에 선수로 끝내기 할 맛도 없다. 이것은 완전한 양후수이므로 그만큼 가치가 적다.





등산 안내

덕유산

옛부터 덕(德)이 많아 넉넉한 산, 너그러운 산으로 불리우고 있는 덕유산은 해발 1,614m의 향적봉(香積峰)을 주봉으로 삼고 있다.

무풍의 삼봉산(三峰山, 1,254m)에서 시작하여 수령봉(水嶺峰, 933m), 대봉(大峰, 1,300m), 지봉(池峰, 1,302m), 거봉(居峰, 1,390m), 덕유평전(德裕平田, 1,480m), 중봉(中峰, 1,594m)을 넘어 향적봉에 올랐다가 다시 중봉, 덕유평전을 거쳐 무룡산(舞龍山, 1,492m), 샷갓봉(1,410m), 남덕유산(南德裕山, 1,508m)에 이르기까지 줄기차게 달리는 덕유연봉(德裕蓮峰)들이 장장 100리길의 대간(大幹)을 이루며 영·호남을 가르는 우리나라 12대 명산 중 하나다.

삼남을 굽어보는 덕유연봉의 최고봉인 향적봉에 오르면 북으로 가깝게는 적상산(赤裳山, 1,038m)을 아래에 두고 멀리 황악산(黃岳山), 계룡산(鷄龍山)이 보인다.

서쪽은 운장산(雲長山), 대둔산(大屯山), 남쪽은 남덕유산을 앞에 두고 지리산(智異山), 반야봉(般若峰)이 보이며 동쪽으로는 가야산(伽倻山), 금오산(金烏山)이 보인다.

향적봉 정상에서 발원한 옥수가 흘러내리며 구천동 33경을 만들고, 북사면의 무주리조트, 서남쪽의 칠연계곡을 이루어 수많은 탐방객들을 맞이하는 덕유산은 두문산(斗文山, 1,051m), 칠봉(七峰, 1,161m), 거칠봉(居七峰, 1,178m) 등의 고봉(高峰) 등을 거느리고 봄철이면 칠십리 계곡에 빨간 철쭉꽃을 피우고 여름이면 질

푸른 녹음으로 피서객을 손짓하며, 가을이면 붉게 타는 단풍으로 만산을 물들이고, 겨울이 되면 하얀 눈이 뒤덮인 설경 속에 설화를 피워 신비경을 이룬다.

면적이 231.65km²로서 전북 무주군·장수군·경남 거창군·함양군 등 2개도 4개군에 걸쳐있으며, 1975년 2월 1일 강원도 오대산과 더불어 10번째로 국립공원으로 지정되었다.



■ 무주구천동 철쭉제

무주구천동 철쭉제는 무주군의 상징 꽃인 철쭉이 덕유산 일대에 만개하는 5, 6월경의 봄철 관광객 유치와 관광발전을 위해 구천동 상인회에서 소규모로 행해지던 산신제를 수용하고, 그 규모를 확대시켜 1996년부터 개최 산행대회, 지역특산물인 산나물채취대회 등을 통해 지리적 특성을 살린 행사, 자연과 인간의 환경친화

적 만남을 주제로 한 행사 등을 개최하고 있다.

무주는 자연이 아름답고 국내에서 가장 청정지역으로 꼽히고 있고, 덕유산의 구천계곡, 칠연계곡, 무주 리조트 등 관광개발의 잠재력 높은 곳이다.

무주구천동 철쭉제 기간에는 철쭉아가씨 선발대회, 철쭉가요제, 종이접기 공예전, 산나물 채취, 각종 전시회 등을 경험 할 수 있고, 무주군 덕유산 국립공원 집단시설지구 내덕유산의 5월은 온통 철쭉꽃으로 뒤덮여 온 산이 불붙는 듯 하다.

■ 교통안내

- 기차 : 경부선 영동역 → 영동터미널로 이동 (도보15분) → 구천동행 버스 승차 → 삼공주차장 하차
- 버스 : 무주터미널 도착 → 구천동행 버스 승차 → 삼공주차장

하차<첫차 07 : 00 막차 19:45 (12회 운행)>

- 승용차 이용시 : 대전~통영간 고속도로 → 무주 IC 좌회전 → 19번 국도 → 49번 지방도 이용 삼공주차장 진입



골프

드라이버 ②

티 그라운드에는 코스 전략의 회의실

목표에 대하여 올바르게 자세를 취하는 방법

볼 뒤에서 볼의 1m 가량 앞에 무엇이든 표지를 찾아내라. 볼과 그 표지를 잇는 연장선이 목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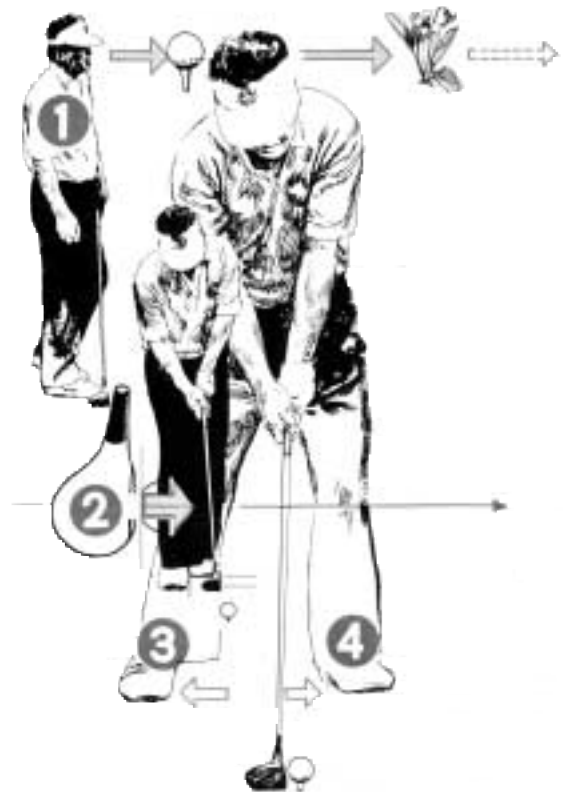
스탠스를 정하기 전에 클럽페이스를 그 표지와 볼을 잇는 선에 대하여 직각으로 맞춘다. 스탠스를 잡고 페이스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페이스를 먼저 맞추고 그 다음에는 스탠스를 정하는 것이다.

볼 뒤에 서서 목표선을 정하지 않으면 생각지 않던 착각에 빠지는 수가 있다. 왼쪽에 나무숲이 돌출되어 있으면 오른쪽을 바라보고 싶어지며, 페어웨이의 경사라든가, 티잉 그라운드(이하 티 그라운드로 한다) 혹은 티 아크의 방향도 목표선의 설정을 그르치게 하는 요인이 된다.

일반적으로는 목표선보다 약간 오른쪽을 향하게 되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 그것은 스탠스를 잡은 다음에 페이스를 맞추기 때문이다. 습관을 익혀야 한다.

어드레스의 순서

- ① 볼 뒤에 서서 목표선을 만들고 그 선상에 표지를 보아 둔다.
- ② 볼의 1미터 가량 앞의 표지에 페이스를 맞추고
- ③ 오른쪽발을 맞춘 다음
- ④ 왼발을 가지런히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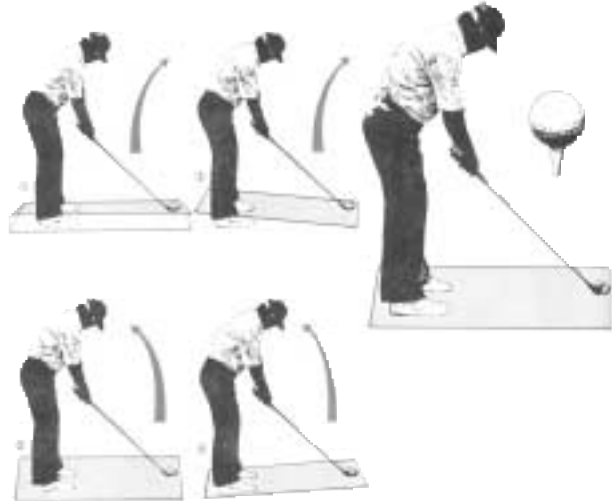


티업하는 장소 고르기

티 그라운드에는 반드시 평탄한 곳만 있는 것은 아니다. 볼의 위치와 발의 위치가 같은 높이로 되어 있는 곳을 찾아서 티 업하라.

스탠스의 위치보다도 볼의 위치가 낮다든지 혹은 스탠스를 잡은 왼발 쪽이 낮은 경우 타구는 슬라이스하기 쉽다. 반대로 볼 쪽이 높다든지, 왼발이 높다든지 하면 후크볼이 나오기 쉬워진다.

원칙적으로 평탄한 장소에서 티업하는데 티 그라운드의 경사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다. 왼쪽에 OB가 있을 경우에는 볼 쪽이 낮은 위치 혹은 약간 왼발이 내려가는 장소를 고르면 후크를 막을 수 있다. 슬라이스는 절대 금물이라는 경우에는 볼 쪽이 높은 곳이나 왼발이 약간 올라가는 곳에 서서 티 업하면 슬라이스는 잘 나지 않게 된다.



티업의 장소에서 볼의 굴곡을 막는 방법

티 그라운드의 경사가 타구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 티 업의 장소를 선택하는 것이 티 샷의 중요한 포인트가 된다.

티 업 하기 전에 페어웨이 좌우의 상황과 티 그라운드의 경사를 잘 보아둘 필요가 있다.

왼쪽으로 OB가 있으면 볼 쪽이 높게 되어 있는 장소는 피해야만 한다. 오른쪽으로 구부러지게 하고 싶지 않을 때는 왼발이 내려가는 스탠스를 잡지 말아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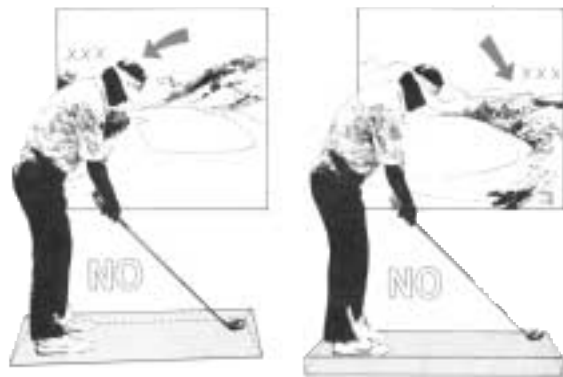
- ① 왼발이 내려가는 사면(斜面)과 ② 발끝이 내려가는 사면에서의 타구(打球)는 오른쪽으로 구부러지기 쉽다. 반대로 ③ 왼발이 올라가는 사면과 ④ 발끝이 올라가는 사면에서의 타구는 왼쪽으로 구부러지기 쉽다.

후크를 막는 데는 티업을 낮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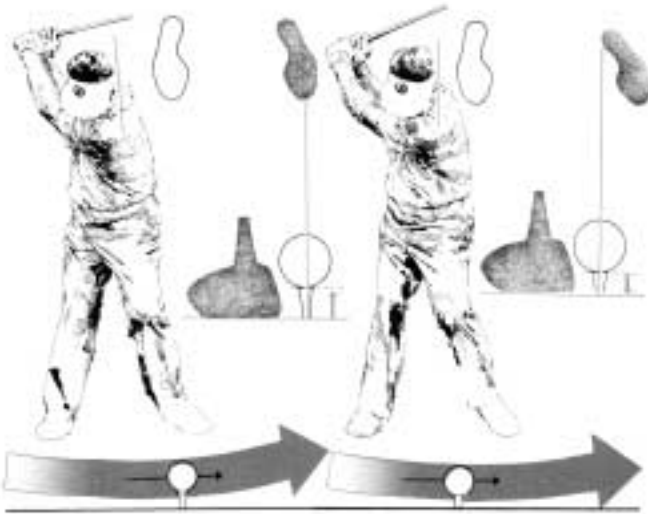
왼쪽으로 구부러지게 하면 트러블이 되는 홀에서는 티 업을 좀 낮은 듯하게 해야 한다. 볼을 왼쪽 발꿈치의 선에 놓고 위에서 누르려고 하지 말고 사이드에서 쳐내는 기분의 타법이 알맞다.

슬라이스를 막는 데는 어퍼 블로우

슬라이스는 절대 금물이라는 경우에는 티 업을 좀 높은 듯하게 하고 어퍼 블로우의 기분으로 치는 것이 좋다. 상체를 뒤에 두고 높게 한껏 쳐낸다.



왼쪽 사이드가 위험한 홀에서는 왼발이 올라가는 스탠스는 금물. 그리고 오른쪽 사이드로 치고 싶지 않은 경우에는 왼발이 내려가는 스탠스는 피하고 타구의 방향을 티 업의 높이로써 조절하는 방법도 있다. 왼쪽으로 보내고 싶지 않을 경우에는 티 업을 약간 낮게, 오른쪽으로 보내고 싶지 않을 때는 티 업을 좀 높게 잡으면 된다.



슬라이스를 막으려면 티 업을 높은 듯하게, 볼은 왼발 발끝 쪽으로

후크를 방지하려면 티 업을 낮은 듯하게, 볼은 왼쪽 발꿈치 앞에

순풍은 높은 볼로 바람을 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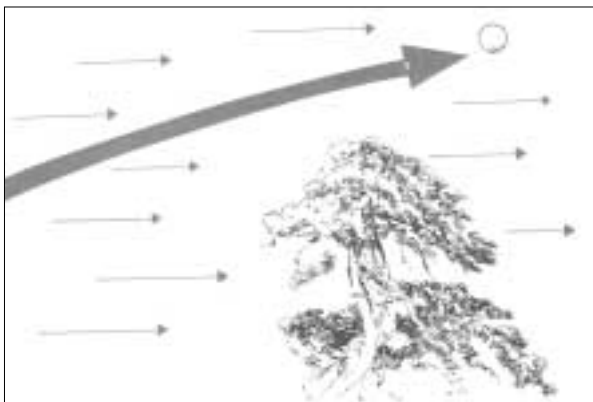
순풍이 불고 있을 때는 어퍼 블로우로 높은 볼을 치는 것이 유리하다. 볼을 여는 때보다 약간 왼쪽에 놓고 티 업을 조금 높게 한다. 몸을 뒤에 두고 폴로우드로우를 높게 잡아라. 높이 올라간 볼은 순풍을 타고 쪽 뻗어나간다.

맞바람이라도 볼은 발꿈치 앞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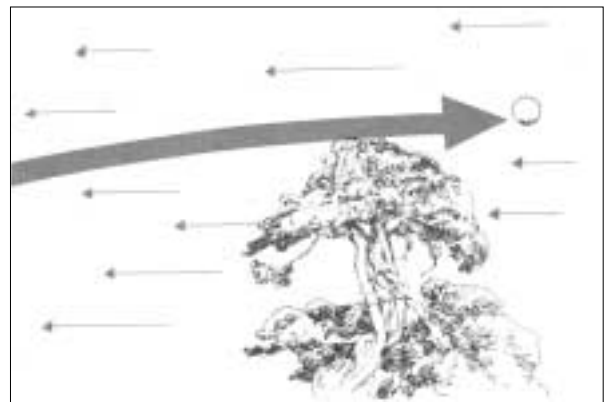
맞바람이나 옆에서 부는 바람이 불 때는 낮은 볼이 유리하다. 티 업을 보통보다 좀 낮게 하고 볼은 왼쪽 발꿈치 앞에 놓는다. 드라이버의 경우 볼을 왼쪽 발꿈치의 선보다 오른쪽에 놓으면 클럽헤드가 늦어진 상태로 볼을 오른쪽으로 밀어낼 염려가 있다.

맞바람에는 단단히 쳐낸다

맞바람일 때 세게 때리면 볼은 높이 떠버린다. 임팩트를 강하게 하기보다는 끝까지 일정한 속도로 쳐내도록 마음을 쓰라. 힘껏 때리는 것이 아니라 차라리 사이드 블로우 쪽에 가깝게 치는 것이 좋다. 그 경우에 티 업을 너무 낮게 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순풍이 때는 어퍼 블로우로 쳐서 볼이 높이 뜨게 한다. 순풍이 비거리를 뻗게 해준다.



맞바람에 높은 볼은 금물. 사이드 블로우로 쳐서 볼을 낮게 날려보내야 한다.

골프의 과학 미니 지식

임팩트와 원심력



원심력은 헤드 스피드를 감지하는 센서

평균적인 드라이버 샷에서 볼의 초속이 60m가 된다면 이 볼은 약 200m의 비거리를 얻을 수 있다. 볼과 비거리는 초속 1m를 초과할 때마다 비거리가 3.7m 씩 늘어난다는 인과관계에 있다.

볼의 초속은 임팩트에서 클럽헤드가 볼에 충돌함으로써 얻어진다. 일정한 스피드로 진입해 온 헤드의 타구면과 볼이 최초로 접촉하고 나서 볼이 타구면을 떠나기까지가 임팩트이다.

볼과 타구면이 서로 접촉해 있는 임팩트의 시간은 상상 이상으로 짧아서 대략 1만분의 5~6초에 지나지 않는다.

임팩트의 전반에서는 타구면에 접하는 볼의 측면은 큰 힘을 받아서 서서히 찌그러져 간다. 이 찌그러짐이 최대가 된 시점 이후는 볼이 타구면으로부터 반발하여 볼이 원래의 모양으로 복원되면서 볼은 타구면으로부터 떨어지기 시작한다.

이와 같은 순간적인 충돌 현상에서는 클럽헤드로부터 볼로 자연히 운동량이 이동한다.

임팩트에 의해서 볼이 초속을 얻자면 헤드 스피드가 감속하게 되는데 이 사이에 헤드와 볼 사이에 평균 수백kg이라는 힘을 주고 받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헤드가 받는 힘은 헤드 스피드의 감속에 의해서 흡수되어 버리기 때문에 샤프트에는 큰 힘은 실리지 않는다.

임팩트에서 얻어지는 볼의 초속은 헤드 스피드에 비례하므로 볼의 비거리를 내기 위해서는 큰 헤드 스피드로 볼을 치지 않으면 안된다.

그래서 골프의 레슨에서는 흔히 “원심력으로 친다”라는 말을 쓴다.

골프의 다운 스윙에서 클럽헤드는 거의 원에 가까운 궤도를 그리고 운동을 시작한다. 헤드에는 원심력이 걸려서 바깥 쪽으로 당겨지고 동시에 샤프트로부터 이와 맞먹는 구심력을 안쪽으로 받게 된다.

이 사실에서 알 수 있듯이 원심력·구심력이 모두 헤드의 운동선과 직각의 방향을 향한다.

헤드의 운동방향은 볼이 날아가는 방향과 일치하며 이와 직각인 관계에 있는 원심력과 구심력에는 볼을 날리는 능력이 없다.

따라서 원심력으로 볼을 날린다는 표현은 명백히 잘못된 것이지만 그러나 다른 의미에서 원심력과 볼의 비거리는 하나의 상관관계에 있다.

일정한 반경으로 원운동을 하고 있는 물체에 걸리는 원심력의 크기는 스피드의 제곱에 비례해서 커진다는 것이 밝혀져 있다. 원운동의 스피드가 증가하면 원심력은 급격하게 커진다. 다시말해, 원심력은 원운동의 스피드를 감지하는 매우 강도가 좋은 센서였던 것이다.

다운 스윙에서 헤드의 원심력은 결국 그립을 밖을 향해서 잡아당기는 힘으로써 작용한다. 그리고 그 세기는 스피드의 제곱에 비례한다.

“원심력으로 쳐라”는 말 속에는 헤드 스피드를 크게 하라는 뜻과 헤드의 원운동, 즉 스윙은 몸의 회전으로 만들어야 하는 2가지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고 해석하면 될 것이다.

이 2가지 점은 골프 스윙의 생명이라고도 할 만한 포인트이기 때문에 “원심력으로 쳐라”는 실로 명언이라 할 수 있다.